

2024. 5. 1. (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장정욱 선임비서관(박주민 의원실) 010-6788-5732

세계 노동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은 올해로 134주년을 맞이한 세계 노동절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라는 외침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행진은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노동권 정신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하게 한 필라델피아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34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동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정책은 후퇴했고,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악마화했습니다. 이에 항의해 작년 노동절에는 건설노동자 고 양희동 씨가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설산업의 위기는 심화되고 고용은 한없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을 추진해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으려 했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들은 후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논쟁의 결과이자 지난해 대법원판결을 입법에 반영한 사회적 숙의의 결과물을 거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해온 현실을 바꾸기 위한 입법이 거부당한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노동

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것을 반성하고, 정부의 반 노동 기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노동조합법 2·3조를 다시 개정하고, 적정임금제 등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입법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사회경제적 '乙'인 비정규직, 특수고용, 미조직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노동자와 함께하는 22대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5. 1.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